차례

★ 표시는 먼저 읽을 회이고, ★★는 두 방식 모두에서 먼저 읽을 회입니다. 지문 풀이와 선지 판단은 해설책에 있습니다.

올해 Pick 두 방식이 함께 고른 제재 예측 Pick 출제 경향 분석으로 고른 제재 사설 Pick 사설 모의고사 흐름으로 고른 제재

■ 인문·예술

1회	성리학의 이와 기 올해 Pick ★	4
2회	이름과 필연성 올해 Pick ★	8
3회	왕필과 곽상 사설 Pick ★	14
4회	바르트의 신화론 사설 Pick	18

■ 사회·문화

5회	착오송금 올해 Pick ★★	24
6회	소비 이론 올해 Pick ★	28
7회	형법의 인과 관계 올해 Pick ★	32
8회	토지 행정과 재산권 사설 Pick ★	36
9회	거시 경제 모형과 금리 올해 Pick	40

■ 과학·기술

10회	양자점 디스플레이 올해 Pick ★★	46
11회	이동식 크레인 올해 Pick ★	50
12회	CFC와 오존층 파괴 사설 Pick ★	54
13회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 사설 Pick ★	58
14회	후성유전과 항암 치료 사설 Pick	62

■ 한 장 정리 모음

모음	1~14회 한 장 정리	68

■ 개념

개념 1	법 문장을 판정하고 해석 방법을 구분하는 법	84
개념 2	전제·결론·반례로 논증을 평가하는 법	86
개념 3	구성 요소·단계·변수 관계를 따라가는 법	88

■ 보너스 읽어 두기

보너스 1	시와 그림, 그리고 매체 올해 Pick	90
보너스 2	주희를 따른 조선의 선비들 예측 Pick	92
보너스 3	기적의 증언에 대한 흄의 견해 예측 Pick	94
보너스 4	하이데거의 존재론 예측 Pick	96
보너스 5	사변적 실재론과 그 비판 사설 Pick	98
보너스 6	말은 배우는가, 타고나는가 사설 Pick	100
보너스 7	자연법의 역사와 현대적 재구성 사설 Pick	102
보너스 8	조세 법률주의와 상속세·증여세 올해 Pick	104
보너스 9	행정 대집행 올해 Pick	106
보너스 10	법 해석과 유추 사설 Pick	108
보너스 11	터너의 교류 욕구 사설 Pick	110
보너스 12	세계화를 보는 두 시선 사설 Pick	112
보너스 13	가상 메모리 올해 Pick	114
보너스 14	연산 환경의 변화와 GPU 올해 Pick	116
보너스 15	초전도체와 초유체의 발견 예측 Pick	118
보너스 16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예측 Pick	120
보너스 17	지자기 역전의 발견 사설 Pick	122
보너스 18	건축물과 공간 사설 Pick	124

사람의 도덕은 우주와 어떻게 이어질까

수능특강 79쪽 제재 · 교재 없이 읽어도 됩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

실천의 학문이던 유학이 존재의 근본을 묻기 시작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하나요?'라는 물음에 '벌을 받지 않으려고'라고만 답하면 어딘가 모자라 보입니다. 착함이 세상의 바탕과 이어져 있다는 더 깊은 근거를 듣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옛 유학은 효도나 예절처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실천의 학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중국 송나라의 앞 시기인 북송 초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 존재의 근본을 따지는 **형이상학**을 불교와 도교가 앞서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북송 중기의 유학자들이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사람의 도덕은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뒤에 **성리학**으로 정리됩니다. 뿌리를 서로 다르게 놓은 두 사람이 장재와 정이이고, 둘을 종합한 사람이 송나라 뒤 시기인 남송의 주희입니다.

장재: 우주는 기로 가득 차 있다

장재에게 기는 존재의 근원, 이(理)는 기 안의 질서다.

북송의 학자 장재는 존재를 **기**(氣)로 설명했습니다. 기는 오늘날 '기운'이라는 말에 남아 있는데, 장재가 말한 기는 물질 알갱이에 그치지 않고 우주와 모든 존재가 비롯되는 근원입니다. 그는 기가 모이면 사물이 생기고 흩어지면 사라지지만 기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그것을 물이 얼음으로 얼었다가 다시 녹는 일에 빗대었습니다. 텅 빈 듯한 공간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기로 가득 찬 실체입니다. 사물의 이치나 질서를 뜻하는 **이**(理)도 기 바깥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장재에게 이는 기가 움직이는 가운데 드러나는 질서이고, 근본은 어디까지나 기입니다.

화육과 천인합일

사람은 화육의 정수이므로, 도덕 실천이 곧 천도의 실현이다.

기로 가득한 우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바뀌며 온갖 것을 낳고 기릅니다. 수능특강의 글은 장재가 이 운동을 **화육**이라 불렀다고 설명합니다. '화'는 바뀌게 하고 생기게 하는 작용이고, '육'은 길러 자라게 하는 작용입니다. 장재에 따르면 모든 것은 화육에서 나왔으며, 사람은 우주의 움직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축된(한데 뭉친) 결과입니다. 또 그는 기가 도덕으로 나타난 것을 '어짊'으로 옮기는 **인**(仁)이라 했는데, 사람은 우주 작용의 정수이므로 인 역시 가장 넉넉하게 타고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덕 실천은 개인의 착한 행동을 넘어 하늘의 길, 곧 천도를 이루는 일이 됩니다. 사람이 도덕을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이 관점이 **천인합일**입니다.

장재의 철학

	장재의 생각	열쇠 낱말
우주	기로 가득 차 스스로 만물을 낳고 기른다	화육
사람	우주의 작용이 가장 응축된 결과	인을 가장 넉넉히
도덕	사람의 도덕 실천이 곧 천도의 실현	**천인합일**

■ 개념 풀이

기	모이고 흩어지며 만물을 이루는 바탕
이	사물이 있고 움직이는 데 깃든 이치나 질서
천인합일	사람이 도덕 실천으로 하늘, 곧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생각

이와 기, 무엇을 앞에 둘까

수능특강 79쪽 제재

정이: 이가 만물의 본질이다

장재와 같은 시대의 학자 정이는 무게를 이(理)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를 사람과 사물 모두에 깃든, 선하며 두루 통하는 원리로 보았습니다. 어떤 성질이나 덕목 하나가 아니라 그 존재를 바로 그것이게 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이(理)를 본성으로 지녔으니 본성도 본래 선합니다. 기는 이가 현실에서 모습을 갖추게 하는 수단입니다. 사물의 형체를 이루는 것도, 사람의 감정과 욕망이 일어나는 것도 기를 거쳐서입니다.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지만 이가 기보다 근본입니다. 모든 존재에 이가 있다는 점에서는 장재와 같고,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다릅니다.

정이에게 이는 본질이고 기는 이가 나타나는 수단이다.

욕망을 경계하는 수양

정이에게 감정과 욕망은 기를 거쳐 일어나므로 존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도리에서 벗어나는 까닭도 기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이는 본성의 이를 지키고, 기를 조심하며 사사로운 욕망을 걷어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능특강의 글은 이것을 **존천리 거인욕**의 수양론, 곧 스스로 돌아보고 닦아 도덕을 완성하려는 성찰의 수양관으로 정리합니다.

본성의 이를 지키고 기에서 오는 사사로운 욕망을 없앤다.

주희: 두 사람을 골라 합치다

남송의 학자 주희는 두 사람에게서 필요한 생각을 골라 이와 기의 관계를 짜임새 있게 밝힌 **이기론**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이와 기가 함께 움직여 온갖 것을 낳고 키우는 살아 있는 체계이고, 사람이 도덕을 닦는 일은 우주의 도를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장재의 화육과 천인합일을 이어받은 부분입니다. 한편 그는 이를 만물과 사람 본성의 근본 바탕인 **본체**로, 기를 이가 현실에서 드러나 작용하게 하는 수단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은 정이를 이은 것입니다.

생명의 우주는 장재에게서, 이의 우위는 정이에게서 왔다.

기가 맑은가 탁한가

늘 선하고 변하지 않는 이와 달리, 기는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여 만물의 차이를 만듭니다. 주희는 이를 물속의 구슬에, 기를 물에 빗대어 맑은 물에서는 구슬이 빛나고 흐린 물에서는 빛이 가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도 타고난 이는 선하지만 기가 탁하면 기질이 치우쳐 도덕에 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희는 정이처럼 마음을 닦아 이를 드러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를 버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주와 사람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와 기를 나누되 떨어뜨리지 않았고, 이가 기보다 근본인 위계를 세웠습니다.

이와 기를 함께 인정하되, 이가 기보다 근본이다.

세 사람의 이와 기

	장재	정이	주희
중심	기(존재의 근원)	이는 본질, 기는 수단	이를 본체로, 기를 수단으로
이와 기	이는 기 안의 질서	떨어지지 않되 이가 근본	**이가 근본, 기의 쓰임도 인정한다**
도덕	인의 실천 = 천도 실현	사사로운 욕망을 걷어 낸다	정이처럼 마음을 닦아 이를 드러낸다

■ 개념 풀이

존천리 거인욕 하늘의 이치, 곧 본성의 이를 지키고 사람의 사사로운 욕망을 없앰

본체 현상 밑에 있는 근본 바탕

다음 글을 읽으며 찾을 것

(가)의 물음
주희는 '이'를 알게 되는 길을 무엇으로 보고, 그 길은 어디에 이르는가

두 사람의 격물
주희와 왕수인은 격(格)을 어떻게 풀고, 무엇을 격물의 대상으로 보는가

앎과 행함
두 사람은 앎과 행함의 관계를 각각 어떻게 보는가

앞에서 읽은 내용을 OX로 확인하기

1 성리학 이전의 유학은 존재의 근본보다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데 가까웠다. O X

2 장재의 생각대로라면 텅 빈 방도 기가 없는 곳이 아니다. O X

3 장재에 따르면 기가 흩어져 사물이 사라지면 기 자체도 없어진다. O X

4 정이에게 이(理)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O X

5 모든 존재에 이(理)가 있다고 본 점에서 장재와 정이는 생각이 같았다. O X

6 정이에 따르면 사람의 감정과 욕망은 이(理)를 거쳐 일어난다. O X

7 주희가 장재에게서 이어받은 것은 이(理)를 본체로 보는 생각이다. O X

8 주희의 비유에서 구슬의 빛이 가려질 때 탓할 것은 구슬이 아니라 물이다. O X

OX 정답과 해설 주황 글씨는 틀린 문장을 만든 방식입니다

1 O 효도나 예절처럼 실천을 가르치다가 북송 중기에 근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2 O 장재에게는 텅 빈 듯한 공간도 기로 가득 찬 실체입니다.
3 X **결과 바꾸기.** 사물은 사라져도 기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음이 녹아도 물이 남습니다.
4 X **뜻 바꾸기.** 이(理)는 덕목 하나가 아니라 존재를 바로 그것이게 하는 본질입니다.
5 O 둘이 갈리는 곳은 이(理)가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입니다.
6 X **자리 바꾸기.** 감정과 욕망은 기를 거쳐 일어나므로 정이는 기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7 X **출처 바꾸기.** 이(理)를 본체로 본 것은 정이에게서, 화육과 천인합일은 장재에게서 왔습니다.
8 O 구슬은 늘 선한 이, 물은 맑고 탁한 기입니다. 가리는 쪽은 기입니다.

EDB 방배공방

(가)

성리학은 세계를 '이(理)'와 '기(氣)'로 설명한다. 남송의 주희에 따르면 '이'는 사물이 그렇게 되는 까닭이자 마땅히 그래야 할 법칙이고, '기'는 '이'가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어 드러나게 하는 재료이다. 그는 '이'가 없는 '기'도 없고 '기'가 없는 '이'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이'가 곧 본성이라는 성즉리(性卽理)를 학문의 중심에 두었다. 그에 따르면 마음은 '기' 가운데 가장 정밀하고 맑은 것으로서, 본성을 담아 그것이 작용하게 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기 본성과 만물에 깃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희는 그 답을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찾았다. 격물과 치지는 『대학』이 밝힌 공부의 단계 가운데 맨 앞에 놓여,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그는 격(格)을 '이르다'로 풀어, 격물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따지는 일로 보았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작은 벌레 하나에도 저마다 '이'가 있으므로, 한 사물이라도 따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이치가 빠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희가 자연물만 살피라고 한 것은 아니다. 책을 읽을 때는 글에서 이치를 따지고, 일을 처리할 때는 그 일의 옳은 곳을 헤아리는 것도 모두 격물이었다.

한 사물씩 이치를 따지는 공부를 오래 쌓으면 어느 날 막힘없이 꿰뚫어 알게 된다. 그때에는 모든 사물의 겉과 속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내 마음의 온전한 본체와 큰 작용도 밝아진다는 것이다. 사물을 따지는 일이 마음을 밝히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주희가 하나의 '이'가 만물 저마다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하늘에 하나뿐인 달이 나뉘지 않고도 강과 호수 곳곳에 비치는 것에 빗대었다. 자신의 앎을 끝까지 넓혀 모르는 것이 없게 하는 치지는 이처럼 격물을 거쳐 이루어진다.

주희는 앎과 행함이 눈과 발처럼 늘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서도, 선후를 따지면 앎이 먼저이고 경중을 따지면 행함이 무겁다고 하였다. 무엇이 마땅한지를 먼저 밝혀 알아야 행함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마음을 거두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경(敬)을 지키는 일을, 이치를 따지는 일과 함께 공부의 두 축으로 삼았다. 경을 지킬수록 이치를 따지는 공부가 치밀해지고, 이치를 밝힐수록 경을 지키는 공부가 나아진다고 본 것이다.

(나)

명나라의 왕수인은 젊은 시절 주희의 가르침대로 친구와 차례로 대나무의 이치를 따지는 격물에 나섰다. 친구는 사흘 만에, 그는 이레 만에 이치를 얻지 못한 채 병이 났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격물을 해낼 큰 힘이 없다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귀양지인 용장에서 성인의 도가 자기 본성에 이미 넉넉히 갖추어져 있음을 깨달은 뒤, 그는 지난날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보고 격물 공부는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마음이 곧 '이'라는 심즉리(心卽理)이다.

왕수인은 주희의 격물이 마음과 '이'를 둘로 쪼갠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물마다 '이'를 구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효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구하는 것과 같다. 효의 이치가 부모의 몸에 있다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내 마음에 효의 이치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의 이치는 부모를 섬기는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 밖에는 따로 일도 '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물(物)을 뜻이 향해 있는 일로, 격(格)을 '바로잡다'로 풀어, 격물을 그 일에서 마음의 바르지 못한 것을 걷어 내는 공부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앎과 행함도 둘로 나뉘지 않는다. 왕수인은 아름다운 빛깔을 보는 것은 앎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행함에 속하지만, 보는 순간 이미 좋아한 것이지 본 뒤에 따로 마음을 먹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한 것이며, 누군가 효를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는 이미 효를 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앎과 행함을 둘로 나누어 먼저 다 알고 나서 행하겠다고 하면 끝내 행하지 못하고 끝내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 한다.

만년의 왕수인은 맹자가 말한,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앎인 양지(良知)를 옳고 그름을 스스로 아는 마음의 본체로 삼아 공부의 중심에 두었다. 양지는 누구나 지니고 있으므로 성인이 되는 길은 바깥에서 지식을 보태는 데 있지 않다. 일마다 양지를 가리는 사사로운 욕심을 걷어 내고 양지를 끝까지 실현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치양지(致良知)이다. 그에게 『대학』의 치지는 앎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양지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주희와 왕수인의 답

	주희	왕수인
이(理)의 자리	본성이 곧 '이'(성즉리)	마음이 곧 '이'(심즉리)
격(格)	이르다	바로잡다
물(物)	풀·나무에서 책·일까지	뜻이 향해 있는 일
앎과 행함	늘 함께, 앎이 먼저·행함이 무거움	본래 하나(지행합일)
치지	앎을 끝까지 넓힘	양지를 끝까지 실현함

왕수인이 주희를 비판한 말(마음과 이를 둘로 쪼갠다)은 주희 자신의 주장이 아닙니다.

효의 예를 단계로 보면

단계	내용
가정	효의 이치가 부모의 몸에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떠난 뒤 내 마음에 효의 이치가 없어져야 한다.
숨은 전제	**실제로는 부모가 떠난 뒤에도 내 마음에 효의 이치가 남아 있다.** (글에 없음)
그러므로	처음 가정이 틀렸다. 효의 이치는 부모의 몸에 있지 않다.
결론	효의 이치는 섬기는 내 마음에 있다.

앞에서 읽은 주희와 이 글의 주희

	앞에서 읽은 것	이 글
본성	타고난 '이'는 선하다	하늘에서 받은 '이'가 곧 본성(성즉리)
이와 기	떨어지지 않되 '이'가 근본	떨어지지 않는다(근본은 말하지 않음)
공부	마음을 닦아 '이'를 드러냄이 가장 중요	격물(이치 따지기)과 경(마음 거두기), 서로 돕는 두 축

두 글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마음 거두기(경)를 이치 따지기와 함께 두 축으로 둘 뿐이며, 판정은 이 글에 적힌 대로 합니다.

이 제재가 시험에 나오면

'이'가 나오면
본성이 곧 '이'인지 마음이 곧 '이'인지, 주어부터 확인합니다.

'격물'이 나오면
격을 '이르다'로 읽었는지 '바로잡다'로 읽었는지 가립니다.

앎과 행함이 나오면
주희는 서로 필요하되 앎이 먼저, 왕수인은 본래 하나로 봅니다.

몰래 산 노트북은 되돌릴 수 있을까

여러 제재에 두루 쓰입니다

법 문장의 뼈대: 요건과 효과

열일곱 살 학생이 부모님 몰래 중고 노트북을 샀다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 봅니다. 판 사람에게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은 이런 물음에 대개 '어떤 사실이 있으면 어떤 법적 결과가 생긴다'는 모양의 문장으로 답합니다. 앞의 사실을 **요건**, 뒤의 결과를 **효과**라고 합니다. 요건이 여럿이면 연결하는 말부터 봅니다. '그리고'로 이어진 요건은 하나만 빠져도 효과가 생기지 않지만, '또는'으로 이어진 요건은 하나만 갖추어도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로 이어진 요건은 하나만 빠져도 효과가 없다.

효과를 나타내는 말을 가려 읽고, 예외까지 본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말이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요건을 다 갖추어도 '그러나', '다만' 뒤의 문장이 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문장은 요건, 효과, 예외의 세 칸으로 읽습니다.

요건 → 효과 → 예외 순서로 세 칸에 넣는다.

예시 글: 미성년자의 계약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고,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와 '또한' 뒤가 예외의 자리다.

적용: 사례를 칸에 넣어 판정하기

노트북을 부모님의 동의 없이 샀다면 '미성년자이다', '법률행위를 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요건 세 개를 모두 갖춥니다. 연결하는 말이 없어도 누가,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로 나누면 요건이 보입니다. 매매는 돈을 낼 의무를 지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이고,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이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취소하기 전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취소의 근거는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범위를 정해 쓰라고 준 돈으로 샀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 주어 성년자로 믿게 하고 샀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삼촌에게 노트북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면 권리만 얻는 행위라 동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민법의 예외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바뀌면 어느 칸이 바뀌는지 찾는다.



■ 개념 풀이

법률행위	계약처럼 의사를 표시해 법적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할 권한을 법이 정해 준 사람. 대개 부모
처분	재산을 팔거나 쓰거나 남에게 넘기는 일

같은 문장인데 왜 다르게 읽을까

여러 제재에 두루 쓰입니다

낱말에는 흐린 가장자리가 있다

글자로 안 정해지는 자리에서 근거를 골라 읽는다.

영국의 법철학자 하트는 '공원에 탈것을 들여올 수 없다'는 규칙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동차는 금지되지만 자전거나 장난감 자동차는 어떨까요? 낱말에는 뜻이 분명한 중심과 흐린 가장자리가 있어서, 글자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 자리는 **법 해석**으로 답을 정해야 합니다. 해석 방법을 나누는 첫째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읽느냐입니다. 공원 규칙으로 말하면, 사전의 '탈것' 뜻에서 찾으면 문리 해석, 같은 규정의 다른 조문에서 찾으면 체계적 해석, 규칙을 만들 때의 회의 기록에서 찾으면 역사적 해석, 공원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목적에서 찾으면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둘째 기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추는 말뜻을 벗어나고, 확대 해석은 말뜻 안에 있다.

미국의 법학자 풀러는 공원에 전쟁 기념물로 세운 트럭은 어떠냐고 물으며 하트를 반박했습니다. 낱말의 중심에 있는 탈것인데도 막아야 하는지는 규칙의 목적을 따져야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말뜻 안에서 범위를 넓게 읽으면 **확대 해석**, 좁게 읽으면 **축소 해석**입니다. 말뜻을 벗어난 비슷한 경우에 같은 결과를 주면 **유추**, 규정에 없는 경우에 반대 결과를 내면 **반대 해석**입니다. 근거와 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이어서 목적을 근거로 넓게도 좁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글: 전기를 훔칠 수 있는가

말뜻을 넘을 수 없어 법을 새로 만들었다.

1899년 독일 제국 법원은 전선을 몰래 끌어다 방에 불을 밝힌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절도죄의 대상인 동산(움직여 옮길 수 있는 물건)은 형체가 있어야 하며, 형벌 규정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듬해 독일은 전기를 몰래 빼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했다.

적용: 어느 방법이 어디에서 막혔는가

형벌을 지우는 쪽의 유추는 금지된다.

재산 보호라는 목적만 보면 전기도 보호할 만합니다. 그러나 형체가 없는 전기를 동산에 넣으면 말뜻을 벗어난 유추가 됩니다. 법률에 없는 경우를 비슷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유추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금지됩니다. 우리 형법도 조문을 두어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절도의 대상)로 봅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법에 빈틈이 있고 규정된 경우와 비슷하며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할 때 유추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설명을 위한 예: 규칙의 목적을 소음 방지로 볼 때

방법	읽은 결과
확대·축소 해석	아이가 타는 장난감 자동차까지 금지하면 확대, '엔진 달린 것'으로 좁혀 자전거를 허용하면 축소
유추	사람이 타지 않아 탈것은 아니지만, 소음이 비슷하므로 드론도 금지한다
반대 해석	드론은 탈것이 아니므로 금지되지 않는다

■ 개념 풀이

확대 해석	낱말의 뜻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넓게 읽는 방법
유추	낱말의 뜻을 벗어난 비슷한 경우에 같은 결과를 주는 방법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

조선의 선비들은 왜 중국의 산을 그렸을까

수능특강 104쪽 제재 · 교재 없이 읽어도 됩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삶을 학자의 본보기로 삼았다.

가 본 적 없는 산, 처음 보는 시

조선의 선비들은 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산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산을 노래한 옛 시에 운을 맞추어 새 시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면 그 가수가 다녀간 곳을 찾아가 보고 노래를 따라 불러 보듯, 존경하는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면 그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그런 사람은 12세기 중국 남송의 학자 주희였습니다. 주희는 앞선 학자들의 학설을 모아 **성리학**을 하나의 체계로 완성했습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이치와 사람의 본성을 탐구하고 그 이치에 맞게 마음을 닦으려는 유학의 한 갈래입니다. 16세기 이후 이황, 이이 같은 학자들이 연구를 깊게 한 조선에서는 주희의 삶이 학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희가 무이구곡의 실제 경치를 읊은 노래가 「무이도가」다.

주희의 무이산과 「무이도가」

주희가 머문 곳은 중국 남쪽 푸젠 지방의 무이산입니다. 본래 도교의 성지로 이름난 산이었는데, 주희가 숨어 살면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주희는 이곳에 **무이정사**, 곧 학문을 닦고 제자를 가르치는 집을 지었습니다. 산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은 아홉 번 굽이치는데, 이 아홉 굽이가 **무이구곡**입니다. 주희는 벗들과 배를 띄워 굽이를 따라가며 본 실제 경치를 「무이도가」라는 노래로 읊었습니다. '도가'는 노를 저으며 부르는 뱃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자연을 벗 삼아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주희의 생각을 잘 보여 주어, 뒷사람들은 여기에 운을 맞춘 시를 많이 지었으며 그 경치를 「무이구곡도」라는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주희를 따르는 일은 유행이 되었지만 학통마다 방식이 달랐다.

운을 맞춘다는 것: 차운

한시는 구절 끝의 정해진 자리에 소리가 어울리는 글자를 두는데, 이 글자가 운자입니다. **차운**은 남의 시에 쓰인 운자를 같은 순서로 빌려 와 새 시를 짓는 일입니다. 운자는 원래 시와 같고 나머지는 지은이가 자기 말로 채우므로, 원래 시의 틀을 따르면서 그 위에 자기 마음을 얹는 셈입니다. 따라서 원래 시와 그 지은이를 따르겠다는 뜻을 드러내기에 알맞습니다. 조선에서는 주희처럼 성리학으로 마음을 닦고 학문에 힘쓰는 일이 선비들 사이의 문화적 유행이 되었고, 주희의 뱃노래를 차운하고 무이구곡을 그리는 일도 그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학통**, 곧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진 학문의 줄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무이산을 둘러싼 이름들

이름	무엇인가
무이정사	주희가 무이산에 지은, 학문을 닦고 제자를 가르치던 집
무이구곡	무이산 계곡물이 굽이치는 **아홉 굽이**
「무이도가」	주희가 무이구곡의 실제 경치를 읊은 뱃노래

■ 개념 풀이

성리학	우주의 이치와 사람의 본성을 탐구하며 마음을 닦는 유학
차운	남의 시의 운자를 같은 순서로 빌려 새 시를 짓는 일
학통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학문의 줄기

같은 노래를 두고 두 학통은 왜 다르게 따랐을까

수능특강 104쪽 제재

이황의 학통: 차운하고 그림을 되풀이하다

그림이 무이산을 대신했으므로 빠짐없이 모사하는 데 힘썼다.

이황은 주희의 뱃노래에 차운한 시를 남겼고, 남이 가진 무이구곡 그림의 여백에 그 노래를 적어 주었다고 전합니다. 그를 따른 학자들도 차운을 즐기고 그림을 거듭 그렸습니다. 수능특강의 글에 따르면 화가 강세황의 두루마리 그림에는 이황을 높인 학자 이익의 글이 실려 있고, 이익은 그림이 주희의 초상화와 같아 빠짐없이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상화가 그 사람을 대신하듯, 이들에게 그림은 갈 수 없는 무이산, 곧 주희가 꿈꾼 학문의 이상이 깃든 곳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 그림을 그대로 옮기는 **모사**에 힘썼습니다. 한편 수능특강의 글은 이들이 주희의 노래를 자연 앞에서 일어나는 감흥인 **흥**과 **성정 도야**를 담은 시로 보았다고 정리합니다.

이이의 학통: 조선 땅에 구곡을 만들다

노래를 학문의 차례로 읽고 조선 땅에 구곡을 경영했다.

한 세대 뒤의 이이를 따른 학자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이이는 황해도 해주의 석담에 정사를 짓고 그곳의 아홉 굽이를 노래한 「고산구곡가」를 지었으며, 그가 죽은 뒤 학통을 이은 이들이 이를 바탕으로 「고산구곡도」를 그렸습니다. 글에 따르면 이들은 주희의 노래를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차례를 담은 시로 읽었습니다. 수능특강의 글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홉 굽이를 공부의 단계로 읽으면 그 차례를 제 땅에서 밟아 보려 하기 쉽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계곡에 정사를 짓고, 아홉 굽이를 정해 이름 붙이고 가꾸는 **구곡 경영**을 하며 노래하고 실제 경치를 그렸습니다. 이는 중국에는 드문 일이라고 하며, 뒷날 이황의 후손도 이황이 머문 도산에 구곡을 정했습니다.

노론: 구곡으로 학문의 계보를 보이다

노론은 구곡 경영으로 주희-이이-송시열의 계보를 드러냈다.

이이 쪽에서 송시열을 대표로 한 정치 세력 **노론**은 구곡 경영으로, 주희의 학문이 이이를 거쳐 자기들에게 왔다는 **학문적 계보**를 보이려 했습니다. 구곡을 재현하면 주희의 학문을 이었다는 정통성이 드러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론의 김수증은 강원도 화천의 곡운에서 제자를 기르고, 화가 조세걸에게 그곳을 둘러보게 한 뒤 「곡운구곡도」를 맡겼습니다. 10년 뒤에는 집안 자제들과 주희의 노래에 차운한 시를 지어 그림과 엮었으니, 차운은 이이 쪽도 했습니다. 김홍도, 김득신 등 여러 화가가 그린 「고산구곡시화도」 병풍에도 이이의 노래와 송시열 등 노론 문인의 시가 실려, 주희-이이-송시열의 계보를 드러내고 결속을 다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특강의 글이 나눈 두 학통의 방식

	이황의 학통	이이의 학통
노래를 읽은 눈	흥과 성정 도야를 담은 시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차례
그림의 바탕	무이산을 대신하는 그림의 모사	조선의 실제 경치
대표 활동	차운, 「무이구곡도」 거듭 제작	**조선 땅에서 구곡 경영**

■ 개념 풀이

흥	자연 같은 대상을 마주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감흥
성정 도야	타고난 성품과 감정을 바르게 닦아 기르는 일
구곡 경영	계곡의 아홉 굽이를 정해 이름 붙이고 가꾸는 일

(가) 1문단

성리학은 세계를 '이(理)'와 '기(氣)'로 설명한다. 남송의 주희에 따르면 '이'는 사물이 그렇게 되는 까닭이자 마땅히 그래야 할 법칙이고, '기'는 '이'가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어 드러나게 하는 재료이다. 그는 '이'가 없는 '기'도 없고 '기'가 없는 '이'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이'가 곧 본성이라는 성즉리(性卽理)를 학문의 중심에 두었다. 그에 따르면 마음은 '기' 가운데 가장 정밀하고 맑은 것으로서, 본성을 담아 그것이 작용하게 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기 본성과 만물에 깃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희의 이와 기, 성즉리를 세운 뒤 '이'를 어떻게 아는지 묻습니다.

이와 기 → 늘 함께 있음 → 성즉리 → 마음은 기 → 어떻게 아는가

문단 해설

이(理)는 '왜 그렇게 되는가'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까닭도,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도리도 '이'입니다. 기는 '이'가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재료로, 앞에서 '수단'이라 부른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즉리는 사람의 본성이 곧 '이'라는 명제이므로, 사람은 마땅한 도리를 본래 지니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 쪽에 놓입니다. 이 글에서 주희는 마음이 본성을 담아 작용하게 한다고 할 뿐, 마음 자체가 '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꼭 보기

주희에게서 '이'인 것은 '본성'이고, '마음'은 기 가운데 가장 맑은 것으로서 본성을 담습니다. 반면 (나)의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라고 봅니다. 성즉리와 심즉리의 주어를 바꾼 선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 2문단

주희는 그 답을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찾았다. 격물과 치지는 『대학』이 밝힌 공부의 단계 가운데 맨 앞에 놓여,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그는 격(格)을 '이르다'로 풀어, 격물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따지는 일로 보았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작은 벌레 하나에도 저마다 '이'가 있으므로, 한 사물이라도 따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이치가 빠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희가 자연물만 살피라고 한 것은 아니다. 책을 읽을 때는 글에서 이치를 따지고, 일을 처리할 때는 그 일의 옳은 곳을 헤아리는 것도 모두 격물이었다.

주희는 격물을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끝까지 따지는 일로 풉니다.

격물치지 → 공부의 첫 단계 → 격은 '이르다' → 풀·나무에도 '이' → 책과 일도 격물

문단 해설

『대학』은 배움의 차례를 밝힌 유학 경전입니다. 주희는 격을 '이르다(다다르다)'로 읽어, 격물을 사물 곁으로 가서 그 이치의 끝까지 이른다는 말로 풀었습니다. 이치는 사물마다 있으므로 하나를 건너뛰면 그 몫의 이치를 모르게 됩니다. 수학 단원 하나를 건너뛰면 그 단원의 원리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사물은 자연물만이 아닙니다. 책을 읽으며 글에 담긴 이치를 따지는 일이나, 친구와의 다툼을 어떻게 푸는 것이 옳은지 헤아리는 일도 격물입니다.

꼭 보기

주희의 격물을 자연을 관찰하는 일로만 좁힌 선지는 틀립니다. 글은 '자연물만 살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나) 1문단에서 왕수인이 대나무를 붙든 것은 나무 한 그루에도 '이'가 있다는 주희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 개념 풀이

성즉리	본성(性)이 곧(卽) 이(理)라는 명제. 주희가 학문의 중심에 둠
격물치지	『대학』의 말.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따져 앎을 넓힘으로 풀었다
『대학』	배움의 차례를 밝힌 유학 경전

(가) 3문단

한 사물씩 이치를 따지는 공부를 오래 쌓으면 어느 날 막힘없이 꿰뚫어 알게 된다. 그때에는 모든 사물의 겉과 속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내 마음의 온전한 본체와 큰 작용도 밝아진다는 것이다. 사물을 따지는 일이 마음을 밝히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주희가 하나의 '이'가 만물 저마다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하늘에 하나뿐인 달이 나뉘지 않고도 강과 호수 곳곳에 비치는 것에 빗대었다. 자신의 앎을 끝까지 넓혀 모르는 것이 없게 하는 치지는 이처럼 격물을 거쳐 이루어진다.

쌓인 격물이 어느 날 꿰뚫리면 사물과 마음이 함께 밝아집니다.

오래 쌓음 → 막힘없이 꿰뚫음 → 사물과 마음이 밝아짐 → 하나의 이 → 치지

문단 해설

문제를 하나씩 쌓아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단원 전체의 원리가 한눈에 보이는데, '막힘없이 꿰뚫어 안다'가 그런 순간입니다. 바깥 사물을 따졌는데 내 마음까지 밝아지는 까닭은 색칠한 구절에 있습니다. 달이 쪼개지지 않고도 강마다 통째로 비치듯, 대나무의 '이'와 내 본성의 '이'는 같은 하나입니다. '온전한 본체와 큰 작용'에서 '본체'는 마음의 바탕이고, '작용'은 그 바탕이 움직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진다고 해서 마음이 곧 '이'인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담긴 본성까지 환히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꼭 보기

치지는 격물과 따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격물을 거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만물이 하나의 '이'를 한 조각씩 나눠 가진다는 선지는 '온전히'와 달의 비유에 어긋납니다. 그렇다고 한 사물만 따지면 다 안다는 선지도 틀립니다. 글은 한 사물씩 오래 쌓아야 꿰뚫린다고 하고, 2문단은 하나라도 건너뛰면 그만큼 빠진다고 합니다.

(가) 4문단

주희는 앎과 행함이 눈과 발처럼 늘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서도, 선후를 따지면 앎이 먼저이고 경중을 따지면 행함이 무겁다고 하였다. 무엇이 마땅한지를 먼저 밝혀 알아야 행함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마음을 거두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경(敬)을 지키는 일을, 이치를 따지는 일과 함께 공부의 두 축으로 삼았다. 경을 지킬수록 이치를 따지는 공부가 치밀해지고, 이치를 밝힐수록 경을 지키는 공부가 나아진다고 본 것이다.

주희는 앎을 앞에, 행함을 무겁게 두고, 경과 이치 따지기를 함께 세웁니다.

눈과 발 → 앎이 먼저, 행함이 무거움 → 경 → 경과 이치 따지기가 서로 돕는다

문단 해설

눈만 있고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만 있고 눈이 없으면 길을 보지 못하므로 둘은 늘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도 순서를 묻는다면, 길을 먼저 보아야 걸음이 어긋나지 않으니 앎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실제로 걸어야 목적지에 닿으니 행함이 무겁습니다. 경(敬)은 흔히 쓰는 '공경'의 경이지만, 여기서는 마음을 거두어 붙잡는 태도입니다. 공부하다가 딴생각이 들면 마음을 다시 책으로 데려오는 일과 비슷합니다.

꼭 보기

'앎이 먼저'만 보고 주희가 행함을 가볍게 여겼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선후와 경중이라는 두 잣대가 함께 있습니다. 경은 마음을 다잡는 공부이지만 이치를 따지는 일과 서로 북돋우는 두 축 가운데 하나여서, 경을 이치 따지기보다 앞세웠다고 읽어도 틀립니다.

■ 개념 풀이

치지	주희에게는 앎을 끝까지 넓혀 모르는 것이 없게 하는 일
경(敬)	마음을 거두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태도

(나) 1문단

명나라의 왕수인은 젊은 시절 주희의 가르침대로 친구와 차례로 대나무의 이치를 따지는 격물에 나섰다. 친구는 사흘 만에, 그는 이레 만에 이치를 얻지 못한 채 병이 났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격물을 해낼 큰 힘이 없다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귀양지인 용장에서 성인의 도가 자기 본성에 이미 넉넉히 갖추어져 있음을 깨달은 뒤, 그는 지난날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보고 격물 공부는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마음이 곧 '이'라는 심즉리(心卽理)이다.

(나) 2문단

왕수인은 주희의 격물이 마음과 '이'를 둘로 쪼갠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물마다 '이'를 구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효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구하는 것과 같다. 효의 이치가 부모의 몸에 있다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내 마음에 효의 이치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효의 이치는 부모를 섬기는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 밖에는 따로 일도 '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물(物)을 뜻이 향해 있는 일로, 격(格)을 '바로잡다'로 풀어, 격물을 그 일에서 마음의 바르지 못한 것을 걷어 내는 공부로 보았다.

대나무 격물의 실패와 용장의 깨달음을 거쳐 왕수인이 심즉리에 이릅니다.

주희식 격물 → 실패와 탄식 → 용장의 깨달음 → 몸과 마음의 격물 → 심즉리

문단 해설

왕수인은 주희보다 340년쯤 뒤인 명나라의 학자입니다. 친구에 이어 자신도 이레(7일) 만에 병이 나자, 두 사람은 공부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이 모자란 탓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귀양 간 용장에서 생각이 바뀝니다. 성인(聖人), 곧 덕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이 이미 내 본성에 다 있다면 대나무 앞에서 찾을 까닭이 없습니다. 주희도 본성이 곧 '이'라고 했지만, 그에게 마음은 본성을 담은 '기'였고 '이'를 아는 길은 사물에 나아가 따지는 격물이었습니다. 왕수인은 '이'를 찾는 자리를 바깥 사물에서 내 마음으로 옮겼고, 그 결론이 '마음이 곧 이'라는 심즉리입니다.

꼭 보기

탄식할 때와 깨달은 뒤의 판단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리 힘이 모자라다'였고, 깨달은 뒤에는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 것이 잘못'입니다. 둘을 섞은 선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효의 예로 이치가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보이고, 격물을 새로 풉니다.

마음과 '이'를 쪼갠다는 비판 → 효의 예 → 부모가 떠난 뒤 → 마음 밖에 '이' 없음 → 격물의 새 풀이

문단 해설

효의 이치가 부모의 몸에 있다고 해 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내 마음에 효의 이치가 없어져야 합니다. 글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논증은 실제로는 부모가 떠난 뒤에도 효의 이치가 내 마음에 남아 있다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가정이 틀렸고, 효의 이치는 섬기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격물도 달라집니다. 부모를 섬기려는 뜻이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일이 물(物)이고, 그 일에서 귀찮아하거나 생색내려는 바르지 못한 마음을 걷어 내는 것이 격(格)입니다.

꼭 보기

'마음과 이를 둘로 쪼갠다'는 왕수인의 비판이지 주희의 주장이 아닙니다. (가)의 주희는 하나의 '이'가 만물 저마다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왕수인의 격(바로잡다)과 주희의 격(이르다)을 바꿔 놓은 선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 개념 풀이

심즉리	마음(心)이 곧(卽) 이(理)라는 왕수인의 명제
귀양	벌로 먼 곳에 보내져 지내게 하던 일

(나) 3문단

이렇게 보면 앎과 행함도 둘로 나뉘지 않는다. 왕수인은 아름다운 빛깔을 보는 것은 앎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행함에 속하지만, 보는 순간 이미 좋아한 것이지 본 뒤에 따로 마음을 먹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한 것이며, 누군가 효를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는 이미 효를 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앎과 행함을 둘로 나누어 먼저 다 알고 나서 행하겠다고 하면 끝내 행하지 못하고 끝내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 한다.

아름다운 빛깔의 예로 앎과 행함이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보입니다.

둘로 나뉘지 않음 → 빛깔을 보고 좋아함 → 행하지 않으면 모름 → 효를 아는 사람 → 지행합일

문단 해설

길에서 예쁜 꽃을 보면 '이제 좋아해야지' 하고 마음먹기 전에 이미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앎)과 좋아하는 것(행함)이 한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수인은 도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효를 정말 안다면 효를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몸으로 실천하는 일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꼭 보기

(가)의 주희도 앎과 행함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갈리는 곳은 선후입니다. 주희는 앎이 먼저라고 했고, 왕수인은 먼저 다 알고 나서 행하겠다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다만 글에는 왕수인이 이 대목에서 주희를 직접 지목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 4문단

만년의 왕수인은 맹자가 말한,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앎인 양지(良知)를 옳고 그름을 스스로 아는 마음의 본체로 삼아 공부의 중심에 두었다. 양지는 누구나 지니고 있으므로 성인이 되는 길은 바깥에서 지식을 보태는 데 있지 않다. 일마다 양지를 가리는 사사로운 욕심을 걷어 내고 양지를 끝까지 실현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치양지(致良知)이다. 그에게 『대학』의 치지는 앎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양지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만년의 왕수인은 양지를 중심에 두고, 치지를 양지의 실현으로 읽습니다.

맹자의 양지 →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의 본체 → 치양지 → 치지의 새 풀이

문단 해설

친구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가질까 망설일 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왕수인은 이런 앎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보고, 공자를 이은 유학자 맹자의 말을 빌려 양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새로운 지식을 밖에서 보태는 일이 아니라, 양지를 가리는 욕심을 걷어 내고 그 앎대로 끝까지 해내는 일입니다. (가)의 치지가 '앎을 끝까지 넓힘'이었다면, 왕수인의 치지는 '양지를 끝까지 실현함'입니다.

꼭 보기

왕수인도 사사로운 욕심을 걷어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걷어 내는 수양이 앞에서 읽은 정이만의 것은 아닙니다. 또 양지는 바깥에서 배워 얻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지닌 마음의 본체입니다.

■ 개념 풀이

지행합일	앎과 행함이 본래 하나라는 왕수인의 주장
양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의 본체
치양지	일마다 양지를 끝까지 실현하는 공부

미리 보기와 처음 보는 글을 비교하면

	(가)	(나)
그대로 나온 것	주희의 이와 기, 둘이 떨어지지 않음, 본성인 '이'	없음(전체가 새 글)
나오지 않은 것	장재와 정이, '이'가 근본인 위계, 맑고 탁한 기가 만드는 차이	—
처음 나온 것	성즉리라는 이름, 마음은 기, 격물치지, 하나의 이, 앎과 행함, 경	심즉리, 효의 예, 지행합일, 치양지

판정을 먼저 내린 뒤 까닭을 확인합니다

입장 교차

(가)의 주희와 (나)의 왕수인은 모두 격물을 공부의 길로 삼지만 격(格)을 다르게 풀이한다.

적절 (가) 2문단의 주희는 격을 '이르다'로, (나) 2문단의 왕수인은 '바로잡다'로 풉니다. 왕수인은 격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롭게 풀이했습니다.

두 곳을 이어 사례에 적용

한 학생이 봉사 활동의 의미를 책으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야 봉사를 시작하겠다며 봉사를 미루고 있다.

(나)의 왕수인이라면 이 학생이 봉사를 미루는 동안에는 봉사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보겠군.

적절 (나) 3문단의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한 것'과 '먼저 다 알고 나서 행하겠다고 하면 … 끝내 알지도 못하게 된다'를 함께 적용한 판단입니다.

숨은 전제

(나)에서 효의 이치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결론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 마음에 효의 이치가 남아 있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

적절 글에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생각이 있어야 '없어져야 할 것이다'에서 '부모의 몸에 있다'는 가정을 버리고 '따라서' 뒤의 결론(내 마음에 있다)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장이 깔고 있으나 쓰여 있지 않은 생각이 숨은 전제입니다.

주체 바꾸기

주희는 사물마다 '이'를 구하는 공부가 마음과 '이'를 둘로 쪼갠다고 보았다.

부적절 (나) 2문단에서 이 말의 주체는 주희를 비판한 왕수인입니다. (가) 3문단의 주희는 하나의 '이'가 만물 저마다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사물을 따지는 일이 마음을 밝히는 데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나친 일반화

왕수인에 따르면 마음 밖에 '이'가 없으므로 공부는 일을 떠나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부적절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데까지는 (나) 1문단과 맞지만, '일을 떠나'가 틀렸습니다. 2문단의 격물은 뜻이 향해 있는 그 일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걷어 내는 공부이고, 4문단의 치양지도 일마다 양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 이가 없다'를 '일을 떠난다'로 넓힌 선지입니다.

기억에 끌리는 선지

(가)의 주희는 바깥 사물의 이치를 따지기보다 마음을 닦아 '이'를 드러내는 공부를 앞세웠다.

부적절 앞에서 읽은 '주희는 마음을 닦아 이(理)를 드러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가 끌어당기는 선지입니다.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고, 틀린 곳은 '바깥 사물의 이치를 따지기보다'입니다. 이 글의 주희는 마음을 거두는 경을 이치를 따지는 일과 '함께 공부의 두 축으로' 삼고 서로 북돋운다고 할 뿐, 어느 쪽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구하자는 쪽은 (나)의 왕수인입니다.